

<■■■ 아쿠아리움_시나리오>

엔진 : 유니티

장르 : 공포, 탈출

소개 : 아쿠아리움에서 눈을 뜬 주인공. 집에서 지쳐 잠들었던 주인공은 바뀐 장소에도 이상함을 느끼기는 커녕, 안내 로봇을 따라 준비된 숙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며칠간의 휴식이 반복된 후에야 주인공은 이곳이 완벽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고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기이한 장소라는 것에 의구심을 느끼게 된다. 그때 마치 주인공의 의구심을 풀어주려는 듯 나타난 '이곳에 머물지 말라'는 경고의 쪽지가 나타나고, 주인공은 왠지 무시할 수 없는 그 쪽지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린다. 과연 주인공은 아쿠아리움의 정체를 밝혀내고 무사히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

*

1일차

눈을 뜨자, 거대한 수족관이 보였다.
고요한 소음이 귓가에 뭉쳤다.

...에메랄드 빛 해변..이 아닌 바다 속.
그 한가운데 지어진 돔형의 아쿠아리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답고 평화롭다.

유리 너머로 빛나는 모래사장 위에 푸른 물결이 일렁인다.
바닥을 기며 모래바람을 가지고 노는 거북이와 우직하게 버티고 선 바위,
그 곁에 붙은 산호들의 물결.
조그마한 물고기 떼가 일으키는 물소리가 귓가에 스며드는 듯하다.
그야말로 완전한 신세계.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에 이런 건물을 지었지?

문득 떠오른 미약한 의문이 멍한 대기에 녹아 흩어지고,
찰랑거리는 태양과 대리석에 비치는 따스한 조명등을 멍하게 보다가 손에 쥐여진 종이를 인지했다.
...이곳의 팜플렛이다.

[■■■ 아쿠아리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현실에서 해방되세요.
지친 당신을 위한 완벽한 숙소로
당신의 비서, 미러의 안내를 따라가세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안내 로봇이 내 옆에 다가와있었다.
내게 받으라는 듯 내밀어진 손 위에 Mirror라고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기기가 놓여져있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 것을 집어들자, 안내 로봇은 제 임무를 마친 듯 멀리 사라졌다.

곧 미래에서 하얀 빛이 일직선으로 새어나왔다.

마치 길을 알려주는 듯한 방향을 따라간 나는 'VIP'라고 적힌 문앞의 복도에 도달했다.

미래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문고리를 잡아당겨보라는 듯이 계속 빛을 쏘아대어 문을 열어젖혀보자, 안쪽에는 어둑한 방에 커다란 침대가 놓여있다.

...정확히 내 취향의 방이다.

문을 닫고 들어가 폭신한 침대에 앉아보았다.

눕기만 하면 절로 잠이 올만큼 편안한 침대 위에서 나는 간만에 달콤한 휴식을 취했다.

2~5일차

부스스 뜯은 눈으로 따뜻한 불빛이 가득 들어차있다.

...배고파.

머리맡 탁상에서 노란 빛이 반짝였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미래는 저렇게 빛을 반짝였고, 이 다음은 늘-

똑똑.

정중한 노크소리와 함께, 허락을 구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서빙로봇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방금 지어낸 듯한 따뜻한 밥한끼와 내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들이 한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

밥상을 집어들자 서빙 로봇은 알아서 다시 문을 밀고 나갔다.

며칠을 계속 먹고 자고를 반복하며 숙소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영원하던 휴식을 취해서 그런가, 멍한 느낌은 여전했지만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보니 얼마나 시간이 흘렀지.

멈춰던 시간이 흐르듯 오랜만에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하자, 물꼬가 트인 것처럼 온갖 생각들이 터져나왔다.

그리고보니 숙소에서 나간 적이 없네. 숙박비 같은거.. 지불해야할텐데. 근데 나 여기 온 첫날에.. 그냥 바로 숙소로 안내해주지 않았던가? ..근데 나 여기 어떻게 온거지?

시간개념없이 휴식만 취했던 며칠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떠올리려 애써봐도 아쿠아리움으로 온 기억은 없었다. 늘 있었던 기억력 문제로 치부하기엔, 좀.. 찜찜한 일이었다.

생각을 따라 까딱이던 손가락을 내려놓고 옆으로 손을 더듬어 팜플렛을 집어올렸다. 이곳의 지도와 관광 코스가 그려진 팜플렛을 유심히 바라보다 미래를 주머니에 넣은 채 밖으로 나섰다.

어디든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생각이 나겠지 싶었다.

툭.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서빙로봇이 건네준 밥상에서 뭔가 떨어졌다. 밥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지저분한 쪽지 하나가 나폴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잡아챘다.

[정신 차려 이쯤하면 충분히 쉬었어

진심으로 죽길 원하는 적 없잖아? 그랬다면 내가 여기에 없었겠지

그간 여기가 정확히 취향에 맞게 운영될 수 있었던 건

미러가 생각을 다 읽고 있어서 그런거야

아쿠아리움은, 그리고 미러는, 내가 아늑함에 취해서 여기 머무르다 죽길 바라고 있다고!

갑자기 아쿠아리움에 도착하게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

죽기 싫으면 이제 움직여 여기서 나가야지!

내가 미러가 생각을 읽지 못하게 설정을 끄는 법을 알아냈어

관리실을 찾아가면 다음 쪽지를 볼 수 있을거야

부디 거기서 다시 너를 만날 수 있기를]

숨도 쉬지 못하고 읽어내린 쪽지의 내용은 내가 느끼고 있던 평화를 산산히 조각냈다. 며칠이나 편하게 휴식을 취한 이곳을 믿고 싶었지만, 정확히 내가 느끼던 의문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쪽지를 구겨 던져버리고 침대에 대자로 누워 한숨을 토해냈다. 애초에 나같은걸 죽이려고 이렇게 공들일 이유가 없잖아. 내가 이 쪽지의 뭘 믿고 관리실까지 가야하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쪽 편하게 쉴 수 있을텐데.

".....아 진짜 찻찻하게!"

한참을 누워서 이리저리 편한 자세를 취해보려던 나는, 결국 소리를 치며 벌떡 일어났다.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편하게 여기에 쪽 머무를 수가 없어졌다. 절대 쪽지의 말을 믿는 건 아니지만, 차라리 편히 쉬기 위해선 확언이라도 해보는게 좋을 거 같았다. 그래, 까짓거 관리실, 한번 가보고 그냥 돌아오면 되잖아. 검사검사 돌아다니다가 여길 어떻게 오게 됐었는지 떠올릴 수도 있고.

난 방 구석에 처량하게 구겨져 굴러다니던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은채, 팜플렛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숙소를 찾아왔을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제대로 둘러보기 시작하는 아쿠아리움은 새삼 넓은 규모를 자랑하듯 웅장한 규모를 뽐내고 있었다. 착실히 주위를 둘러보며 도착한 아쿠아리움의 로비까지도 나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로비 한가운데서야 사방에서 들리는 것이 조용한 물소리뿐이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끼쳐왔다. 여기, 나밖에 없는건가?

.....인정하기 싫어도, 여기가 이상한 공간이라는 건 인정해야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더 찻찻해졌다. 팜플렛을 펼쳐 이곳이 어딘지 확인해보려 했다. 넓은 평면도 위를 몇번이나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대조해보고서야, 구조상 내가 있는 곳이 광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면도를 보니까 여기서는 민물관이나 바다관에 갈 수 있네.. 관리실이 어디있는지 쓰여있지 않으니까.. 민물관부터 들렀다가 천천히 찾아볼까?

● 민물관

"와..."

통유리로 된 드넓은 수조를 가로지르는 물고기떼들 가운데 축 늘어진 물고기가 보였다. 잉어들만 다 왜이렇게 기운이 없지? 조심스레 다가가는데, 잉어가 말을 걸어왔다.

"거기 너, 우리한테 밥 좀 가져다줘봐"

".....?"

뭐지, 내가 미친건가. 잠시간 가만히 서서 입만 병긋거렸다. 분명히 방금, 잉어가 말을 한거 같은데? 놀란 채로 굳어있는데 또 다시 잉어가 말을 걸어왔다.

“내 말 안들려? 배고프단 말이야. 누가 우리한테 왔어야 할 간식들을 다 아마조니아 월드로 빼돌렸다고.”

“...지, 지금 말을..”

“뭘 놀라. 여기가 어떤 아쿠아리움인데. 당연히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지.”

“어떤... 아쿠아리움..인데?”

“...천국이지. 너도 느끼지 않았어? 하.. 그보다.. 진짜 너무 배고픈데, 이제 진짜 밥 좀 가져다줘. 이러다 굶어죽겠어.”

천국이라고? 물고기가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읽는 장치가 있고 여기가 날 죽일거라는 쪽지가 날아오는 곳인데, 천국이라니.. 확실히 쉬는 동안은 정말 너무 편했지만.. 갑작스레 물고기와 대화를 하게 되어 머리가 혼란했지만, 잉어가 정말 쓰러질 것처럼 간신히 헤엄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일단 살려놓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았다.

“아, 알았어.. 어디서 가져오면.. 되는데?”

“푸드코트”

● 푸드코트

평면도의 지시를 따라 푸드코트에 도착한 나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기대했지만, 음식냄새와 함께 뭔가 이상한 냄새가 섞여 풍겨져나오고 있었다.

“여기도.. 아무도 없네..”

사람이 없다는 점은 정말 좋긴 하지만, 이렇게 넓은 공간에 혼자있다는 사실은 좀 공포스럽기도 했다. 그렇다면 여기도 로봇이 일을 하고 있는건가. 잠깐만.. 근데 이 냄새.. 타는 냄새 아니야? 다급히 주방문을 열고 들어간 나는 요리가 타고 있는 프라이팬 앞에서 가만히 서있기만 하는 로봇을 발견했다. 스프링쿨러가 제대로 작동한 덕에 불은 나지 않았지만 물이 흥건하게 고인 타는 프라이팬 앞의 로봇은 고장이라도 난 모양인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거, 고장났나보네..”

물이라도 닦아주면 제정신을 차릴까 싶어 주방에 널려있던 행주를 들고 다가가 머리를 닦아줬지만 로봇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로봇의 문제는 물이 아니라 나사인 것 같았다. 오른쪽에는 잘 꽃혀있는 나사들이 왼쪽은 전부 풀려서 파츠들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로봇을 수리하는 로봇은 없는건가..? 하긴..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겠지..?
대체 누가 고장낸거지.. 설마..”

이곳에서 로봇을 고장낼 사람이라면, 내게 쪽지를 전달해준 누군가밖에 없지 않나..? 로봇이 쪽지를 썼을리는 없을테니 자연스레 의심이 향하는 방향은 주머니속에 고이 담긴 쪽지의 주인으로 향했다. 물론 쪽지가 이곳에 대한 내 의구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바람에 찜찜함을 못이기고 밖으로 나온건 사실이지만, 이대로라면 오히려 쪽지를 쓴 누군가 이 곳을 망치고 있는 느낌이었다.

“하.. 이것도 내가.. 수리해야하나...?”

정말 이곳이 나를 죽일 곳이라는 걸 아직 믿을 수도 없는데.. 벌써 이런 일들을 목격하니 웬지 마음이 착잡했다. 본 이상 그냥 지나치기는 좀.. 마음에 걸렸다. 순간 지겨움과 귀찮음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간신히 짓누르며, 한숨을 다시 깊게 토해냈다. 대체 누가 이런짓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해결해야 뭐든 다음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우선 냉장고를 뒤져 잉어밥을 찾아내 다시 민물관으로 돌아갔다.

● 민물관

“자, 여기.. 먹어..”

민물관의 밥통으로 잉어밥을 집어넣자, 잉어들이 마구 달려들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금방 밥을 다 먹은 잉어들은 금세 뽕뽕하게 물속을 헤엄쳤다.

“...정말 내키지 않지만,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감사의 표시야. 나한텐 필요없으니까 네가 가져.”

아까 말을 걸어온 잉어가 다가와 밥통에 역으로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나사들이었다. ..설마 이거.. 푸드코트 로봇 나사인가? 이게 왜 여기에..

“우리 밥을 훔쳐갔었던 사람이 우리 수조에 떨어진거야.”

“고마워..”

“내가 줬다고 어디가서 말하지 마. 난 오래 살고 싶거든.”

“응..? 그게 무슨.. 말..어어..”

잉어는 자기 할말을 다마치자마자 불일이 끝난 듯 자신의 무리를 향해 헤엄쳐 사라져버렸다. 오래 살고 싶다니.. 나에게 나사를 주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건가..? 도통 알 수 없는 말을 곱씹으며 나는 다시 푸드코트로 돌아갔다.

● 푸드코트

푸드코트로 돌아온 나는 손으로 하나씩 나사를 끼워줬다. 거의 다 끼워갈때쯤, 덜렁거리던 파츠들이 제자리를 되찾자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로봇의 눈 쪽에 불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덜거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직 나사가 덜 돌아간 로봇의 왼손에서 마치 불순물을 튕겨내듯 툭, 웬 열쇠가 튀어나왔다.

“보..일러실 키?”

보일러실 키가 왜 여기.. 머릿속에서 잉어의 말이 스쳐지나갔다. ‘누가 우리한테 왔어야 할 간식들을 다 아마조니아 월드로 뺄었다고.’ 게다가 그 사람이 나사도 떨어졌다고 했지. 지금 이 아쿠아리움에 사람은 나랑 쪽지 그 사람뿐인거 같은데.. 그럼 이것도 쪽지의 소행일거 아냐. 이대로 관리실을 가는게 맞는걸까? 그냥 숙소로 다시 돌아가거나 하자 싶은 찰나, 뒤에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잉- 하고 로봇의 목이 늘어나는 듯한 소리에 서서히 뒤를 돌아보자, 양 손에 칼을 든 로봇이 내 쪽을 향해 돌아서있었다.

머릿속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것만 같았다. 주춤주춤 뒷걸음질 치던 나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주방 밖으로 도망쳐나왔다. 로봇은 푸드코트까지 따라나왔지만 밖에서 문을 닫아건 위의 잠금장치를 걸어잠그자 쿵. 쿵. 몇번 유리문에 몸을 부딪히더니 그대로 다시 안으로 돌아갔다.

허...십년감수했네.. 긴장이 풀려 그대로 주르륵 땅에 주저앉았는데, 사락, 종이 스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앉은 자리를 바라보니 문 아래에 쪽지가 아슬아슬하게 붙어있었다.

나는 속으로 화를 겨우 삭여가며 쪽지를 펼쳤다. 대체 무슨 말을 써놨는지 봐야겠다.

여기서부터는 개요짤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지레 겁먹고 도망치다가 막다른 통로에서 조각상들을 발견,
통로에는 ‘깨진 그릇은 주워담을 수 없다. 신중하게 깨부숴라’고 써있고,
그 중에서 ‘더는 비출 수 없는 거울’ 동상을 발견한 주인공은 전의 mirror 라는 단어를 봤던 것을 힌트삼아 동상을 깨부순다. 이때 2층으로 가는 통로가 열리면서 주인공은 동상을 깨면 층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됨.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주인공.

2층 플레이(이때부터는 로봇들이 눈만 마주치면 쫓아온다. 다른 공간으로 뛰어가야 따돌릴 수 있음)

모든 동물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거짓을 말하는 동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음 중 진실을 말하는 두 동물은 누구일까?

비버 : 상어가 거짓말쟁이야.

상어 : 악어가 진짜 거짓말쟁이야.

악어 : 개복치의 말을 믿으면 안돼.

잉어 : 상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개복치도 마찬가지지.

개복치 : 상어는 거짓말 같은거 할 줄 모른다니까? 잉어도 그렇고.

비버 악어가 참말

➔ 개복치 사망

➔ 악어에게서 올바른 조각상 정보 얻고

➔ 비버에게서 올바른 조각상 정보 얻고

거북이의 먹이통을 도구(이 도구도 기믹 해제로 얻어야 하는 아이템)로 열어주고 올바른 조각상 정보 얻기
세개의 힌트를 얻으면 2층에서 단 한 개의 조각상을 골라서 깎 수 있음.

조각상의 크기, 동물종, 특성(도서관에 써놓기)

맞는 조각상을 깨면 다음층으로 가는 문이 열림

(육지해양생물은 바다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줌. 그러나 바다의 해양생물
들은 주인공에게 거짓말을 하고 해가 되는 이야기를 함. 어류 = 여긴 정말 좋은 곳이야. 비버 = 너라도 빨리 여
길 나가. (아쿠아리움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도 흘림) 어류 = 이 곳을 세운 주인은 너와 달리 아주 좋은 사람이야.)

조각상을 깨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주인공. 점점 더 어두워진다.

3층 플레이

슬픔 + 끝 = 헤메이다

죽음 - 망설임 = 결단

끝 + 슬픔 + 슬픔 = 죽음

끝 + 망설임 = 네게 가장 가치있는 것

이걸 먼저 보여주고

2 = 결단

4 = 헤메이다

9 = 네게 가장 가치있던 것(는을 지우고 던을 덧그림)

너에게 가치 있던 것들을 높은 숫자에 매겨봤어.

이제 생각해내. 과거의 네게 가장 가치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고 돌아가면

슬픔 + 끝 = 헤메이다

죽음 - 망설임 = 결단

끝 + 슬픔 + 슬픔 = 죽음

끝 + 망설임 = 네게 가장 가치있던 것

이렇게 바뀌어있고

정답은

슬픔 = 1, 끝 = 3, 망설임 = 6, 행복 = 8

3층에서 3번째 조각상을 깨트리면서 주인공은 자신이 자살 시도 끝에 이곳에 왔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 그동
안 봐왔던 쪽지들과 아쿠아리움 곳곳에 숨겨진 문구들 덕에 자신에게도 아직 살고자 하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 주인공은 결의를 다지면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가고, 어둠밖에 없는 방에서 랜턴을
들고 나타난 '나'를 만나 마지막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때 그동안 봐왔던 힌트들을 통해 정답을 많이 맞추면 생존. 반절 맞추면 노멀 엔딩 / 쪽지를 믿지 않고 아쿠아
리움에 머무르거나 함정에 당해 죽으면 배드엔딩.